



정진항

전 두산생물자원(주) 대표이사
전 한국사료협회 부회장

고유가, 기후 온난화 및 금융경색이 사료·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시론(時論)을 써 달라’ 한다.

그런데 최근처럼 변화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서, 변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론의 의미가 있을까?

최근에는 경제 및 경영환경의 변화가 어떠한 업종에 국한하여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전 지구촌에 거의 같은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최근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의 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고유가

고유가는 곡물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생산을 촉진시킴으로써 국제 곡물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를 침체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을 저하시키

고 환율을 악화시킨다.

미국의 경우 연간 약 3억톤의 옥수수를 생산(우리나라 연간 수입량 : 약 7백만톤)하여 그 중 58%를 대체에너지 외 국내사용, 19%를 수출, 23%를 대체 에너지인 에탄올 생산에 사용하였으나, '09년에는 52%를 국내사용, 16%를 수출, 32%를 에탄올 생산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유가에 의한 대체에너지 생산 촉진은 국제 곡물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킨 결과, '06년 9월 150\$/톤(C&F기준)이었던 옥수수 가격은 '07년 12월 230\$, '08년 3월 320\$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320~340\$ 수준에서 안정을 찾던 옥수수 가격은 지난 6월 미국의 최대 옥수수 생산지인 아이오와주 홍수 피해로 인하여 급등하기 시작하여 430\$까지 치솟았다.

■ 기후 온난화

6월초 미국의 최대 옥수수 생산지인 아이오와주 홍수피해로 인하여 급등한 옥수수 가격은 6월 중순 이후 좋은 날씨 탓에 다시 안정(360~380\$)을 찾기 시작하였으나 8월 말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미국의 곡물 수출항 뉴올리안즈 항구를 강타할 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한 때 다시 치솟았고, 9월 중순 우리나라 추석기간 중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크는 100억\$ 이상의 재산과 많은 인명 피해를 끼치면서 우리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으나 불행 중 다행인지 곡물 가격은 급상승하지 않았다.

■ 금융경색

필자는 8월 중순경 미국 곡물생산 및 시장현황을 파악하고자 미국을 방문하였다. 6월초 아이오와주 홍수 피해 이후 좋은 날씨 덕분에 미국 농무성은 옥수수의 풍작을 예상하고 있었고, 유럽의 소맥 풍작 소식과 함께 옥수수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귀국 즈음 갑작스러운 허리케인 구스타브의 출현은 옥수수 가격을 다시 강세로 돌려 놓았고, 한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환율을 상승기조로 바꾸었고 귀국하는 내내 나를 불안하게 하였다.

귀국 후 구스타브에 의한 옥수수 가격 강세는 허리케인 구스타브와 함께 소멸되었으나, 7월말 1009원/\$이었던 환율은 8월말

1082원까지 폭등하였다. 9월에 들어와서도 우리나라의 '9월 금융위기설'은 계속 환율을 괴롭히더니 급기야 10월달 환율은 1,300원대를 넘나들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9월 금융위기설'은 미국 은행들의 부실에 따른 금융경색에 의한 것으로 9월 5일 미국 정부는 그간 계속 부실 예상이 보도되었던 양대 모기기 업체인 프레디맥과 페니메에 금융지원을 전격 발표하면서 환율은 다시 안정세를 찾는 듯하였으나, 9월15일 우리나라 추석기간 중에 발표된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신청에 의하여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미국 정부는 긴급 구제금융을 실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금융불안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환율 불안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 곡물가와 환율의 상승

최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국제곡물가와 우리나라 환율을 상승시킴으로써 사료·축산업의 원가를 상승시키고 우리나라 축산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곡물가의 경우, 8월 이후 석유가격의 하락 추세와 함께 세계 경제의 불황 및 소비 감소 예상에 따라 조금씩이나마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율은 금년 1월 940원/\$에서 출발하여 3월부터 940~1000원, 5월부터는 100

0~1050원, 8월말에는 1080원, 10월 9일은 장중 한때 1,477원까지 급등하여 금년 초에 900원 초반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오히려 엄청난 부담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IMF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IMF는 외환 부족에 의한 일시적 급성적 상황이라면 지금의 상황은 장기적이고 만성적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 인도 및 러시아 등의 경제발전과 곡물소비 증가, 세계 석유자원의 고갈 및 한계에 의한 대체 연료 생산은 곡물 수요를 증가시키고 가격을 계속 상승시킬 것이다.

그리고 곡물 상황보다는 장기적이지는 않겠지만 환율의 급등락은 세계적인 금융경색, 경제상황 및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의 안정에 의하여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도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맺는 말

세계는 바야흐로 점차 식량대국, 자원강국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끝도 없이 지평선만 보이는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지면을 통해서도 많은 전문가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신 것을 필자도 보았고 많은 배움을 가졌다.

지난 9월초,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비전과 전략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지면 관계상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면 농업대국은 어렵지만 농업 강소국이 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었고, 현재의 농산물 수출액은 37.6억불(07년도)이지만, 2013년에는 100억\$을 실현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네델란드의 경우, 2005년 농산물 수출액이 565억 유로 즉 약 700억\$이 된다는데 우리도 노력여하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국내 돈육 가격은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지연 등도 있겠으나, 중국의 돼지 질병발생, 중국과 러시아의 돈육수입 증가 및 국제 돈육가격의 상승, 우리나라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의한 수입 축산물 소비 위축 등 긍정적인 반응이 있음을 시장(市場)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

어쨌든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우리 업계 안으로는 생산성 향상, 밖으로는 품질의 고급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